

## 필리핀의 최근 경제성장을 둔화 배경 및 전망

작성자: 신민금(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작성일: 2015년 06월 05일

- 2012년부터 매년 6% 이상의 고성장세를 유지하며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함께 대표적인 신흥시장인 MVIP 국가로 주목받았던 필리핀 경제의 성장세가 최근 둔화됨.

- 필리핀 경제는 2015년 1/4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5.2% 성장하는데 그쳤으며, 이는 2011년 4/4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임.

표 1. 필리핀의 GDP 지출항목별 증가율 추이

(단위: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간	Q1	Q2	Q3	Q4	Q1
실질GDP증가율	6.8	7.2	6.1	5.6	6.4	5.3	6.9	5.2
소비	6.6	5.7	5.4	5.9	5.7	5.0	5.1	5.4
정부지출	15.5	7.7	1.8	1.9	0.0	-2.6	9.8	4.8
고정투자	10.8	11.9	8.6	11.0	4.5	10.5	8.1	10.1
수출	8.5	-1.1	12.1	13.5	10.5	9.9	15.5	1.0
수입	4.9	5.4	5.8	10.1	3.1	5.1	5.3	4.6

주: 분기 데이터는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NSCB; IHS Global Insight(검색일: 2015.6.3).

- 경제성장 둔화 배경으로는 △ 정부지출 증가율이 둔화된 점 △ 농산물 및 일부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실적이 악화된 점을 들 수 있음.

- 필리핀 대법원이 2014년 중순에 잉여예산 조기집행프로그램(DAP)을 일부 헌법 불합치 판결함에 따라 공공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정부지출 증가율이 둔화됨.

- DAP는 전임정권에서 추진하다 중단된 사업 예산 등 잉여재원을 활용하여 소외 지역 학교 건설, 전기공급 등 현안 사업을 의회 승인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약 33억 달러 규모임.

- 바나나, 설탕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농산물 수출과 제어장치, 자동차 전자제품 등 일부 전자제품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수출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1%로 급격히 둔화됨.

- 필리핀은 2013년 기준 에콰도르, 벨기에에 이어 세계 3대 바나나 수출국임.<sup>1)</sup>
- 최근 바나나 수출 급감은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 중동 국가로부터의 수요 감소, 기상 악화 및 파나마병(TR4)<sup>2)</sup> 리스크 확산에 따른 작황 부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기인함.

■ **정부지출 증가, 민간소비 및 투자 증가세 지속에 따라 1/4분기 이후 성장세 회복이 예상되며, 주요 기관은 필리핀이 2015년에 6% 중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국제통화기금(IMF) 및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필리핀 경제가 2015년에 각각 6.7%, 6.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sup>3)</sup>
- 아키노 대통령이 2015년 3월 30일에 모든 부처 및 공공기관장에 대해 예산집행을 촉구하는 ‘행정명령 46호(Administrative Order No. 46)’를 발표했으며, 차기 총선( 16.5) 개최 전 인프라 건설에 대한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바, 정부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물가 안정, 고용 증대, 해외송금의 지속적 유입에 따라 민간소비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민간의 건설 및 설비투자가 지속되는 등 민간 부문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됨.
- 필리핀은 소비 중심 경제로, 2014년 기준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72.5%임.
- 수출 실적 개선은 일본, 중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기후, 병충해 등 공급 측면에서 농산물 생산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가능할 것임.

〈자료: NSCB, Manila Bulletin, IHS Global Insight, EIU 등〉

1) HS-0803(바나나[플랜틴(plantain)을포함하며,신선하거나건조한것으로한정한다])을 기준으로 저자 계산. UN Comtrade, <http://www.comtrade.un.org>(검색일: 2015.6.3).

2) TR4는 바나나 나무 뿌리를 통해 침투하여 나무를 고사시키는 곰팡이균으로,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음.

3) IMF는 2015년 4월에, ADB는 2015년 3월에 해당 전망치를 발표함.